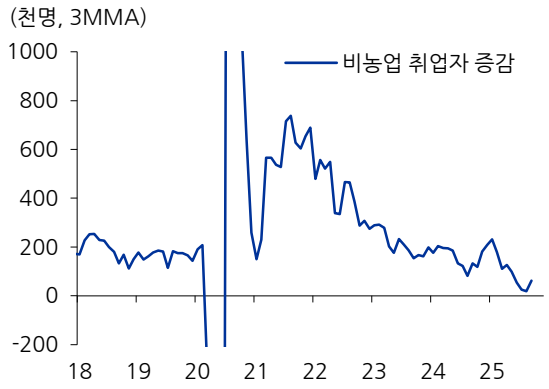
Global Economy

미국 고용 - 힘을 얻는 신중론

Economist 이정훈, CFA 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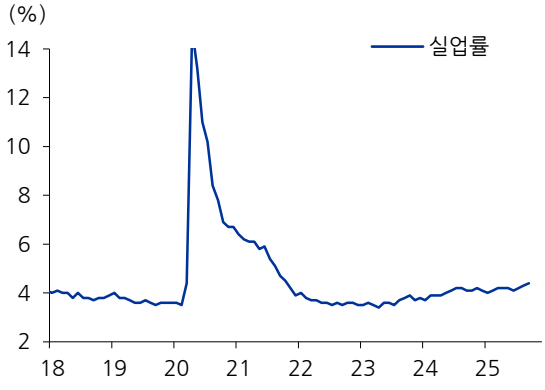
- 9월 비농업 취업자 +11.9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준. 실업률은 4.4%로 3개월 연속 상승
- 시의성은 떨어지나, FOMC 이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12월 인하 기대감을 낮춤
- 이미 이전 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이 12월 금리 동결을 주장함. 실업 급여가 10-11월에도 거의 늘지 않고 있어 '신중론'이 힘을 얻을 가능성 높아짐
- 다만 노동시장의 활력이 여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. 아직 연준의 스탠스는 신중함을 요구할 뿐 인하 기조를 뒤바꾸려는 조짐은 없음. 12월 인하가 무산되어도 한두 달 밀린다면 시장에는 심각한 악재로 볼 필요는 없음

미국 3 개월 평균 취업자 +6.2 만 명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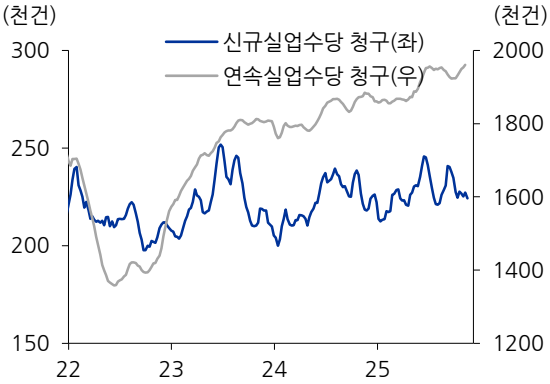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실업률은 4.4%로 3 개월 연속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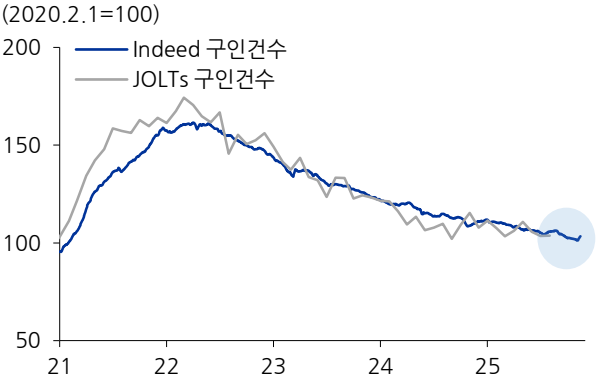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생각보다 늘지 않는 해고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구인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신중해진다고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

뒤늦게 나온 미국 9 월 고용은 생각보다 견조했다. **9 월 비농업 취업자는 +11.9 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.** 지난 4 월 +15.8 만 명 이후 최고치이다. 7-8월 고용은 -3.3만 명 하향되었고 **실업률은 4.4%로 더 상승했다**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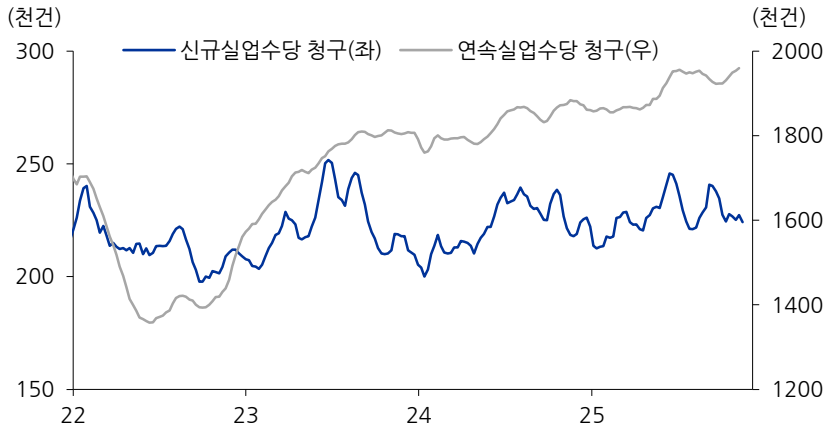
그간 연준의 금리 인하 논거가 물가보다는 고용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, 9 월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견고했던 것은 인하의 당위성을 더 약화시키는 요인이다. 이미 **지난 FOMC 의사록에서 연준 내 다수 인사들이 동결을 주장했다.** 9월 데이터가 뒤늦게 나와 12 월 FOMC 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에는 시의성이 떨어지지만, 추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.

셧다운 기간 신규 실업 급여는 늘지 않았다. 9 월 실업률 상승도 해고 보다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. 추가 데이터의 부재까지 감안하면, **12 월 인하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.**

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. 먼저 9 월 고용 반등은 전산업에서 고르게 반등하기 보다는 건설/헬스케어/정부서비스 등 일부 산업들에서만 크게 반등했다. **전반적인 노동시장 활력은 강하지 않다. 또한 셧다운 기간 실업 급여가 늘지 않았지만, 동 기간 노동 수요도 꾸준히 감소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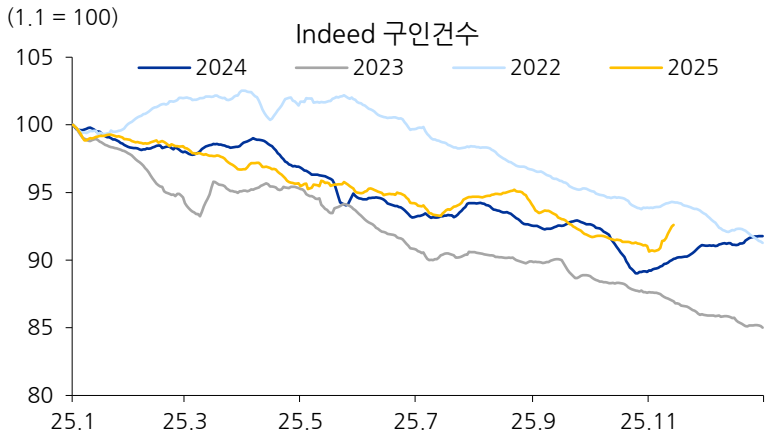
지난 의사록에 나타났듯, 아직까지 연준 인사들은 '조금 더 신중히' 인하하는 것을 원할 뿐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지 않는다. **12 월 금리 인하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1-2 개월 지연되는 정도라면 심각한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**.

도표 1. **신규 실직은 여전히 매우 안정적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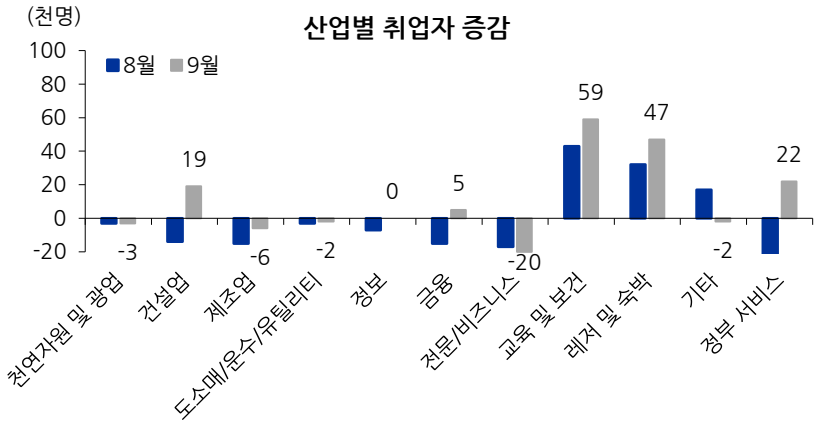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도표 2. **노동 수요는 여전히 하향 추세**



자료: FRED, 유진투자증권

도표 3. **9월 건설/헬스케어/레저/정부 부문에서 고용 확대**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